



갈멜산의 대결

열왕기상 18장 1 ~ 40절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¹⁾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소서.”



¹⁾바알: 고대 시리아 섬족의 남신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 신이면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에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이 누구지 알아보자. 바알 선지자들과 내가 제물을 드릴 것이니,
바알과 하나님 중에 불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정한 신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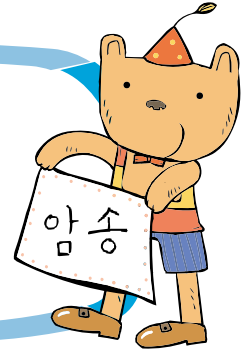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 보라.
바알이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나 보구나.”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10)



이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불은 결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



그 순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뿐만
아니라 돌 제단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백성은 놀라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
두 잡게 하고,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죽
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1.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적어 보세요.

3. 그 친구에게 아래의 질문을 직접 해 보고, 친구의 대답을 적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4.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친구의 대답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왜냐하면 ...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위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알아볼까요

바알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과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남자 신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소나 양 같은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사람이 만든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